

문화유산의 해를 보내며

이벤트 중심의 문화행사를 지양하자

한영우

서울대 교수·국사학

해마다 문화체육부는 '국악의 해' 혹은 '미술의 해' 등을 정하여 문화정책의 중심과제를 하나씩 발표해 왔다. 올해는 '문화유산의 해'로 정했다. 이제 한해를 보내면서 정리해보면 무엇을 성취했는지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그나마 《조선왕조실록》과 훈민정음이 세계기록 유산으로 지정된 것이 다행이다.

비단 올해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무슨 해라고 선포식만 거창하게 치르고, 현수막을 곳곳에 걸어 놓은 것이 전부였다. 관청 중심의 이벤트 행사로 예산을 쓰고 실제로 건지는 것은 거의 없다. 그래서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정부의 시책에 별로 기대를 걸지 않지만 올해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정부의 문화유산에 대한 정책이 얼마나 빈곤한가는 얼마전 국립중앙박물관 지하수장고에서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목판이 발견된 데서도 나타난다. 해방이 된 지 50년이 넘도록 박물관 소장품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동여지도' 목판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다가 지리학자들의 도움을 얻어 목판을 조사하다가 이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우리 박물관의 인력과 예산이 얼마나 취약한가를 보여준다.

일본의 경우는 박물관이 수십명 혹은 수백명의 교수진을 확보하고 있는 데 비하여 우리는 국립박물관에 교수직도 없고 학예직만 있어서, 이들이 학위를 얻으면 모두 대학으로 떠나고 만다. 그나마 인력도 태부족이다. 그러니 박물관에 경험 많은 전문가가 있을 리 없고, 문화재 관리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적문화(典籍文化)의 보고인 서울대 규장각은 더욱 한심하다. 교수는 오직 관장 한사람뿐이고 나머지는 몇명의 학예사와 사서, 그리고 한사람의 주사급 행정관리가 있다. 이러한 인력으로 규장각이 운영되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래서 외국의 유명인사들이 규장각을 방문하면 두 번 놀라고 간다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처음에는 그 자료의 우수성에 놀라고, 다음에는 그 시설과 운영체계의 빈약함에 놀란다. 규장각 발전을 위한 건의안을 수없이 만들어 올리고 있지만, 교육부나 학교 당국은 국가의 인력감축 정책만을 강조하고 있고, 문체부는 교육부 소관이니 알 바 아니라는 태도다. 이리하여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규장각은 버려진 자식처럼 보살피는 주인이 없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지방문화재단들은 전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아파트를 짓거나 도로를 개설하는 등의 개발정책이 사정 없이 문화재를 파괴하고 있어도 이를 보호할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얼마전 고속전철로 물의가 일었던 경주의 경우는 그 대표적 예에 불과하다.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정책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우리의 경우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복원, 그리고 학술적 연구가 교육문화행정의 최우선 사업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관광 등 문화산업이 높은 부가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이제 이벤트 중심의 전시행정으로 아까운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규장각 하나라도 번듯하게 키워주는 실질행정으로 방향을 바꿔야 할 때다. ❖

송년 특집 2 '위대한 영웅' '작은 행복' 갈망했던 한 해
베스트셀러로 본 97년의 출판 흐름

4 불황한파에 몸 움츠린 97년의 출판계
도매상 부도·정가제 붕괴위험 등... 사이버 서점시대 개막

6 올해 가장 책을 많이 펴낸 사람들
김윤식·이청준 등 저술작업 활발

8 쟁점으로 읽는 97년의 지성사
철학(이진우)/국사학(박선식)/사회학(이은진)/
경제학(김영용)/자연과학(이호연)/문학(장은수)

출판화제 14 이 시대를 비추는 '영화읽기'의 매력

15 자연 속에 호흡하며 사는 전원생활의 꿈

주제가 있는 책읽기 16 새로운 땅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읽을거리 - 정수복
환경실천으로 이어갈 환경위기의 담론

인터넷 출판향해 17 미국의 학술흐름 보여주는 '미국대학출판연합' 사이트 - 김종현

해외 출판 18 세계 각국의 독특한 베스트셀러 성향 - 이희재
종교서 압도적인 미국, 문화적 자존심 높은 프랑스 등

서평 20 기든스 《현대성과 자아정체성》 - 윤병철

하임 《가상현실의 철학적 의미》 - 이성훈

21 박우석 《잃어버린 과학을 찾아서》 - 정병훈

22 김정근 엮음 《디지털 도서관》 - 조환규

김동춘 《분단과 한국사회》 - 박승희

확대서평 23 인간이 살고 있는 의미의 세계 - 김인환
그레마스 지음 《의미에 관하여》

이 책 그 사람 24 《마지막 신라인 윤경렬》 펴낸 윤경렬씨
《내가 사랑한 음악 속의 사람들》 펴낸 문호근씨
25 《시간의 그물》 펴낸 이재무씨

28 새로 나온 책

40 출판저널 총목차

48 책의 문화유산 ㉔

표지/덕유산 증봉의 설경 (사진·월간 《사람과 산》 김영선 기자)

알림

본지 12월 20일자 정기 휴간

《출판저널》은 연말연시의 정례휴가에 따라 예년과 같이 12월 20일자를 휴간하고, 다음호(제227호)는 1998년 1월 5일자 신년호로 발행되오니 양지하시기를 바랍니다.